

얼굴로 잠금 해제... 제네시스 '페이스 커넥트' GV60 첫 적용

제네시스 브랜드

얼굴 인식 페이스 커넥트 개발
출입부터 운행, 환경 설정까지
얼굴·지문으로 차량 제어 가능
무선 SW 업데이트 범위도 확대

자동차 열쇠나 스마트키, 디지털키 없이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얼굴을 인식해 차문을 제어하고 등록된 운전자에 맞춰 운행 환경을 제공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개발하고, GV60에 첫 적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스마트키 또는 디지털키 없이도 차량 출입부터 운행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로, 향후 키 없이 생체 정보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시스는 사람과 차량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왔으며, 이번에 개발한 페이스 커넥트는 지



제네시스 얼굴 인식으로 차량 제어하는 '페이스 커넥트'가 적용된 'GV60'.

문 인증 시스템과 함께 운전자와 차량 간 교감을 돕는 기술로써 고객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스 커넥트는 운전자 얼굴을 인식하고 차량의 도어를 잠금 또는 해제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운전석 및 운전대 위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사이드 미러 ▲인포테인먼트 설정 등을 운전자에 맞춰 조정해준다.

제네시스는 페이스 커넥트에 근적외

선(NIR) 방식 카메라를 적용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키를 차량 실내에 두고 도어를 잠그는 것도 가능하다. 페이스 커넥트에는 최대 2명의 얼굴을 등록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하다.

GV60에 함께 적용될 '지문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면 별도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키 없이도 생체 정보만으로 완벽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운전자는



제네시스 GV60의 페이스 커넥트 서비스를 위해 적용된 근적외선 방식 카메라

얼굴인식으로 차량에 탑승 후 지문인식을 통해 시동과 주행이 가능해진다.

또 차량 내 간편 결제나 발레 모드 해제 시 필요한 PIN 코드 입력을 지문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인 것도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이와 함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내비게이션과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한정되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의 범위를 차량 전반으로 확장해 ▲전기차

통합 제어 장치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에어백 등 자동차의 주요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추가로 가능해진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로 별도의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전자제어장치를 포함한 차량 전반의 업데이트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은 항상 최신 기능이 반영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제네시스는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증 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적용범위 확대 등과 같은 사용자 교감형 신기술을 곧 출시할 GV60에 탑재할 예정이며, 점차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페이스 커넥트 기술은 차량 사용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둔 혁신적인 기술로 고객이 차량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주) '쏘카 말레이시아' 650억 투자 유치 성공

현지 점유율 90% 이상, '업계 1위' 동남아 선도 모빌리티 플랫폼 성장

SK(주)가 쏘카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SK(주)는 쏘카 말레이시아에 65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쏘카 말레이시아는 SK(주)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2017년 쏘카와 합작법인으로 설립해, 2020년 추가 투자로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투자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이스트브릿지와파트너스와 말레이시아 다국적기업 사임다비 두곳이 참여했다.

쏘카 말레이시아는 현지 업계 1위 기업으로 점유율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동남아를 선도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SK(주)는 쏘카와 그랩, 투로, 오토노모 등 지역 차량공유 및 모빌리티 기술 업체들에 투자를 지속해왔다. 각 업체들이 상장도 본격화하면서 높은 투자 수익도 기대된다.

SK(주) 신정호 디지털 투자센터장은 "이번 투자 유치와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 쏘카 말레이시아의 플랫폼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SK(주)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한편, 투자 포트폴리오는 향후 성공적으로 회수해 AI, 자율주행 등 고성장 디지털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투자전문 회사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 '더 프레임'에 루브르 작품 신는다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 속으로 '루브르 박물관'도 들여왔다.

삼성전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16일부터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루브르 대표 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더 프레임 '아트 스토어' 플랫폼에 스페인 '프라도', 러시아 '에르미타주'에 이어 루브르까지 세계 유명 미술관의 주요 작품이 추가됐다. 아트 스토어는 더 프레임 전용 플랫폼으로 전 세계 42개국, 600명이 넘는 작가의 작품 약 1500점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더 프레임 사용자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등 명작과 함께 루브르 피라미드, 텔리리 정원 등 박물관 건물과 풍경이 포함된 대표 작품 40점을 아트 스토어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프레임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더 프레임의 4K QLED 화질과 주변 조도에 따라 색감을 조정해주는 조도 센서로 작품을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한창대 기자 cd1@

삼성디스플레이, 노트북용 90Hz OLED 본격 양산

빠른 응답, 이미지 끌림 우수
16형 4K OLED 생산도 시작

노트북 OLED 디스플레이가 주사율 90Hz 시대를 맞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노트북용 주사율 90Hz OLED 디스플레이를 본격 양산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14형으로, 에이수스가 최근 출시한 젠북과 비보북 프로 시리즈에 탑재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90Hz 디스플레이가 LCD 120Hz 디스플레이보다 '이미지 끌림' 평가 결과 더 우수했음을 확인했다. 응답속도가 빠른 OLED 특성 덕분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영상을 구



에이수스 젠북에 탑재된 90Hz 삼성 OLED /삼성디스플레이

동했을 때 90Hz OLED는 0.9mm로 120Hz LCD보다 약 10% 가량 이미지 끌림이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는 16형 4K OLED 생산도 시작했다. 에이수스 젠북과 비보북 프로에 탑재됐다.

젠이장 에이수스 마케팅센터장은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노트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OLED는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동영상 스트리밍, 게이밍 등 노트북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평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90Hz OLED는 노트북을 이용해 고사양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품"이라며 "삼성 OLED만의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화질을 앞세워 노트북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LG디스플레이, OLED로 '가상의 색' 현실 재탄생

'OLED 아트 웨이브' 프로젝트
美 피치스와 디지털 아트전 개최

LG디스플레이가 OLED로 예술을 구현했다.

LG디스플레이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 성수 피치스도원에서 OLED 디지털 아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OLED 아트 웨이브' 프로젝트라 불린다. 예술 작품으로 OLED의 정확한 색 표현력과 높은 디자인 자유도 등 기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미국 패션 브랜드 피치스와 함께다. 65인치 OLED 패널 39장에 자콜비 새터화이트와 람한, 유신에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만든 디지털 아트 선보인다.



OLED 디지털 아트전

/LG디스플레이

작품들은 완벽한 화질의 OLED로 가상의 색을 현실속에서 재탄생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참가 아티스트들도 OLED를 디지털 캔버스라며 호평했다.

LG디스플레이 TV 영업/마케팅그룹

장 김광진 상무는 "차원이 다른 화질의 OLED와 예술의 만남을 통해 OLED의 기술 우수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